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베트남 유력”

베트남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급부상



싱가포르 언론, 미 소식통 인용 보도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타임스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식통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 리스트’(Short List)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줄어든 것 같으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고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가능한 개최지로 언급하며 “두 곳 모두 정상회담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정치 이벤트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태국은 방콕과 후아히에 주요 다자회의를 유치해왔으며 뚜껑, 뱀다야도 그런 행사를 수용할 기간시설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를 2017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하노이, 방콕, 미국 하와이에 사전 답사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스트레이타임스는 소식통과 각국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13일 전했다.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인

도네시아와 몽골 등이 나돌고 있지만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언젠가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현지에서 언론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북미의) 요청이 있으면 유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그 대가로 제공할 ‘상응조치’를 두고 접점을 찾을지가 초점이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핵 리스트 신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상호 불신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북미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도 3월말 스텔스機 보유국 된다

F-35A 2대 도착 예정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사진)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

13일 북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중 1호기가 작년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5대가 추가 출고됐다.

출고된 F-35A 6대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수락검사 절차를 거쳐 작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의 루크 공군 기지에서 우리 공군에 인도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처음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께 실전 배치된다”고 말했다. 3월 이후로도 거의 매달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해 올해 10여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한국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군의 다른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093km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옛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섬주민 차량 여객선 운임

전남도 50%까지 지원

전남도는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차량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그동안 섬주민 소유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에 대해 20%에서 50%로, 1600cc 미만 소형자동차는 20%에서 30%로 각각 확대 지원하고,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공한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 규모는 차량 155만대, 65억원에 달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징용소송 개입 기억 안난다”

전직 대법원장 첫 피의자 신분 檢 출두…14시간 조사 받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러나 특정 성향 판사의 인사 불이익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조사시간을 대폭 할애하면서 그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가 불

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사실 조사에 우선순위를 뒀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했던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개연성이 큰 사건들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 외에도 첫날

이뤄진 조사항목 대부분은 양 전 대법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겼을 개연성이 큰 사건들로 이뤄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대법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의 징계 추진 등이다.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밤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나온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12곳 22억 지원

전남도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공동체 12곳에 사업비 22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가 채용 비용을 확대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전남지역에 283곳이 있다. 이는 전국(1108곳)의 26%를 차지한다.

지난해 어획량 축소, 해안가 청소,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 12곳을 선정해 사업비 22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체별로 복포낙지연승공동체·여수 안포공동체·신안 장산오름공동체 각각 1억 원, 보성 동을·곡산·선소·군봉 등 4개 공동체 13억 2000만 원, 해남 평호·여란진·징의·해남 통발 등 4개 공동체 4억2000만 원, 완도 금당통발공동체 1억2000만 원 등이다.

이들 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수산종자 방류, 어선 안전장비 구입, 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 어촌 소득사업에 자율 관리 육성하는데 쓰인다.

전남도는 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도우미) 채용 비용을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대폭 늘려 37명을 채용한다.

활동가는 19세 이상, 수산분야 경력자 등을 우선 채용하며,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 기록·관리, 어업인 교육, 규정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어업 예방 등을 실현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높은 소득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단
독
섬

바로합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특수물건만 취급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4천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쌍촌동 윤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교환가능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원 수입 13억8천
- 완도를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화순 농주면 면소재지 대지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매도 1억2500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면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